

대학생의 전공계열이 치과진료에 미치는 융합적 연구

김민아¹, 장현정^{2*}, 이연경³

¹송호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²수원여자대학 치위생과 겸임교수, ³송호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The Convergence Study on Dental treatment of related to the Major of University students

Min-A Kim¹, Hyun-Jung Jang^{2*}, Yeon-Kyoung Lee³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ho University

²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h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계열이 치과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4.63배(보건 전공), 2.56배(비보건 전공) 치과 진료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주관적으로 잇몸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과진료를 0.92배(보건 전공), 0.39배(비보건 전공)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계열에 따라 치과진료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고려하여 비보건계열의 대학생을 위한 치과진료에 대한 융합적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습득하여 적절한 치과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전공, 대학생, 치과진료, 구강보건, 융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the effects for researching on dental treatment of related to the major of University students. Regarding the study results, female students took 4.63 times(health-related major) and 2.56 times(health-unrelated major) more than male students for dental treatments. On the other hand if they think their gum health is subjectively good enough they relatively took only 0.92 times(health-related) and 0.39 times(health-unrelated) than students who do not.

Depending on the major the result of the dental treatment are different. Based on this study the dental treatment of convergence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 of health-unrelated major shall be developed. Through this it is will have to be well-organized and correct oral knowledge that should be acquire appropriate dental treatments.

Key Words : Major, University students, Dental treatments, Oral health, Convergence

1. 서론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수동적인 생활에서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환경이 새롭게 바뀌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확장된 본인의 역할에 책임을 지며

주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1].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스스로 관리가 필요하나 책임감이 부족하고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해 구강건강이 악화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2]. 또한 학생에 속하기는 하지만 학교구강보건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사회생활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구강보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Songho University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Hyun-Jung Jang (bxo74@naver.com)

Received November 29, 2018

Accepted January 20, 2019

Revised January 2, 2019

Published January 28, 2019

건교육 대상자도 아니다. 따라서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3]. 대학생을 연구한 이등[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절한 구강관리는 대학생활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뿐 아니라 학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건강한 신체와 심리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 관리와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강건강증진행위는 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과 전문가에 의한 관리방법이 있다[5]. 대학생들이 자신의 구강상태를 인지하고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하에 증진된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추후의 구강건강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인이 필요한 구강건강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전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6].

우리나라 인구 집단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중요 구성원이다. 이들은 청소년기와 다르게 구강진료이용에 있어서 본인 의사에 대한 자율성을 가진 결정권자이기도 하다[7].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구강관리경험과 습관을 파악해서 구강건강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구강건강을 증진시켜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8]. 그리고 대학생의 구강건강행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므로 이들의 올바른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위한 치과진료는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9]. 그러나 황[10]의 연구에서 일부의 대학생은 치과진료의 부담감을 가지고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요인이 구강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통계청에서 실시한 치과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20~29세가 다른 연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치과에 대한 방문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는 적절한 시기의 치과 방문을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만족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전문가 예방처치를 행하는 것은 추후 구강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행태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2,3,7,12] 대학생들의 전공계열에 따른 치과진료행태나 진료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진료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 찾고자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구강검진과 조기

치료를 통하여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강원지역에 소재한 S대학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여 본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동의를 직접 서명 날인 후에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문에 응하지 않는 72명과 설문지 응답의 오류를 범한 2명을 제외하고 513명의 자료로 최종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강원지역에 소재한 S대학의 학생정원 923명 중 중도탈락 학생 및 설문지 회수의 어려움이 있는 야간학과와 산업체 학과를 제외하였고 전공계열을 분류하여 6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요인에 따른 치과진료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4문항으로 성별, 연령, 학년, 거주형태로 구성하였고 구강건강행태의 특성은 8문항으로 음주횟수와 음주로 인한 구강불편여부, 흡연유무와 흡연으로 인한 구강불편여부, 칫솔질 시기와 횟수, 보조용품 사용유무과 종류를 하였다. 구강보건과 관련된 문항은 구강보건지식 I은 예, 아니오 5문항, 구강보건지식 II은 4점 척도로 6문항, 평소구강관심과 주관적 잇몸건강에 대한 부분은 4점 척도로 각각 1문항씩 구성하였다. 치과진료행태는 4문항으로 치과진료유무와 진료목적, 치과불만, 치석제거유무로 구성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전공계열에 따른 건강 및 구강건강행태와 치과진료행태, 구강건강지식 I은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고 구강건강지식 II와 평소구강관심, 주관적 잇몸건강은 점수화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공계열이 치과진료유무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n	%	n	%
Gender	Male	48	19.8	107	39.6
	Female	194	80.2	163	60.4
Age (years)	20-22	205	84.4	218	80.7
	23-25	27	11.1	36	13.3
	≥26	11	4.5	16	5.9
Grade	1	124	51.0	105	39.2
	2	89	36.6	114	42.5
	≥3	30	12.3	49	18.2
Residential Form	Home	105	43.6	120	44.4
	Studio	18	7.5	30	11.1
	Dormitory	114	47.3	117	43.3
	the others	4	1.6	3	1.1
Total		243	47.4	270	52.6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보건계열 47.4%, 비보건계열 52.6% 조사되었고 성별은

보건계열의 남성 19.8%, 여성 80.2%, 비보건계열의 남성 39.6%, 여성 60.4%로 여성이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 20-22세가 보건계열에서는 84.4%, 비보건계열에서는 80.7%로 나타났다. 학년은 보건계열은 1학년 51%, 비보건계열은 2학년 42.5%로 많았다. 주거형태는 자택이 비보건계열은 44.4%, 하숙 또는 기숙사는 보건계열 47.3%로 나타났다.

3.2 연구대상자의 건강 및 구강건강행태

연구대상자들의 건강 및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음주횟수는 ‘일주일에 1~2회 한다’ 비보건계열이 55.6%, 음주로 인한 구강불편함은 ‘아니오’가 82.6% 비보건계열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흡연은 보건계열이 ‘하지않음’ 79.8%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흡연으로 인해 구강불편함은 비보건계열이 ‘아니오’가 68.4%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칫솔질시기에서는 아침식사전, 점심식사후, 잠자기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칫솔질 횟수에서 보건

Table 2. The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status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p
		n(%)	n(%)	
Number of drinks (for week)	No	115(47.3)	85(31.5)	.000***
	1-2	118(48.6)	150(55.6)	
	3-4	9(3.7)	29(10.7)	
	≥5	1(0.4)	6(2.2)	
Oral discomfort by drinking	Yes	47(18.1)	44(17.4)	.01**
	No	199(81.9)	223(82.6)	
Smoking	Yes	49(20.2)	76(28.5)	.03*
	No	193(79.8)	191(71.5)	
Oral discomfort by smoking	Yes	22(46.8)	24(31.6)	.09
	No	25(53.2)	50(68.4)	
Daily toothbrushing time	Before breakfast	159(65.4)	154(57)	.05*
	After breakfast	95(39.1)	121(44.8)	.19
	After Lunch	122(50.2)	112(41.5)	.04*
	After Dinner	107(44)	119(44.1)	.99
	Before sleeping	193(79.4)	188(69.6)	.01**
	After snack	22(9)	16(8.9)	.16
Daily toothbrushing frequency	≤2	83(34.1)	134(49.6)	.00***
	3	131(53.9)	106(39.3)	
	≥4	29(11.9)	30(11.1)	
Oral hygiene supplies used	Yes	73(30.9)	84(31.7)	.85
	No	163(69.1)	181(68.3)	
Oral hygiene supplies	Dental floss	41(57.7)	23(27.7)	.00***
	Interdental brush	8(11.3)	18(21.7)	
	Tongue cleaner	8(11.3)	6(7.2)	
	Gargle	14(19.7)	36(43.4)	
Total		243(47.4)	270(52.6)	

*p<.05, **p <.01, ***p <.001 by Chi-square test

Table 3. The Oral health Cognition of subjects.

Variable	health-related n(%), (M±SD)	health-unrelated n(%), (M±SD)	p
Oral health knowledge I			
1. If you chew gum after a meal, you don't have to brush.	219(91.3)	243(90.0)	.60
2. Fluorine is good for the prevention of tooth decay.	218(90.5)	209(77.7)	.00***
3. You should check the ingredients when you buy toothpaste.	201(83.4)	198(73.3)	.00***
4. Gum disease is painful from the beginning.	177(73.8)	189(70.0)	.34
5. Gum disease is hereditary.	156(65.0)	208(77.0)	.00***
Oral health knowledge II			
1. Poor dental condition affects your entire body's health.	2.85±0.79	2.83±0.76	.67
2. Oral health has important value.	3.21±0.87	3.17±0.86	.59
3. It is important to protect your natural teeth.	3.19±0.87	3.14±0.86	.57
4. Oral diseases are as important as other general illnesses.	3.13±0.83	3.09±0.80	.58
5. Good brushing can prevent gum disease.	3.11±0.85	3.04±0.78	.35
6. Scaling makes your teeth and gums worse.	2.01±0.67	2.36±0.69	.00***
Oral health Interest	2.88±0.86	2.49±0.75	.00***
Idea of gum health	2.67±0.64	2.51±0.58	.03*
Total	243	270	

*p<.05, **p <.01, ***p <.001 by Chi-square test and t-test

계열에서 3회는 53.9%, 비보건계열에서는 39.3%로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구강위생용품 종류에 대하여보건계열은 치실이 57.7%, 비보건계열은 가글이 43.4%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3.3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인식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강보건지식 I에서 '불소는 충치예방에 좋다' 질문에 '예'라고 답한 보건계열은 90.5%, 비보건계열은 77.7%로 나타냈으며 '치약 구매시 성분을 확인한다'는 보건계열이 83.4%, 비보건계열은 73.3%로 나타났다. 또한 '잇몸질환은 유전이다' 라고 알고 있는 보건계열은

65%, 비보건계열은 7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구강건강지식 II는 '스켈링은 오히려 치아와 잇몸에 안 좋다' 는 보건계열 2.01, 비보건계열 2.36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평소에 구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질문에 보건계열 2.88, 비보건계열 2.49이며, 주관적 잇몸건강에 대한 생각은 보건계열 2.67, 비보건계열 2.51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4 연구대상자의 치과진료행태

연구대상자의 치과진료행태에 대한 연구결과는 Table 4과 같다. 치과진료의 유무에서 보건계열이 85.4%, 비보건계열 84.9%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치과진료

Table 4. Dental treatment status and purposes of subjects.

Variable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p
		n(%)	n(%)	
Dental treatment status	Yes	229(85.4)	202(84.9)	.85
	No	39(14.6)	36(15.1)	
Dental treatment purposes	For pain relief	87(42.4)	110(49.3)	.04*
	For Aesthetic purpose	13(6.3)	15(6.7)	
	For Oral examination	57(27.8)	61(27.4)	
	For restore function	42(20.5)	24(10.8)	
	Invite people around you	6(2.9)	13(5.8)	
Discomfort in dental treatment	Yes	125(51.4)	126(46.7)	.55
	No	117(48.5)	143(53.3)	
Experience of scaling	Yes	127(52.3)	136(50.4)	.36
	No	111(45.7)	132(48.9)	

*p<.05, **p <.01, ***p <.001 by Chi-square

Table 5. Factors Affecting Dental treatment.

Variable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B	p-value	OR	(95% CI)	B	p-value	OR	(95% CI)
Gender	Male(Ref)								
	Female	1.53	.00***	4.63	(2.01-10.68)	0.94	.01**	2.56	(1.18-5.53)
Grade	1(Ref)								
	2	0.54	.22	1.72	(0.72-4.14)	-0.03	.93	0.96	(0.43-2.14)
	≥3	0.62	.40	1.86	(0.42-8.14)	0.65	.30	1.92	(0.55-6.69)
Smoking	No(Ref)								
	Yes	0.33	.52	1.39	(0.49-3.91)	0.82	.08	2.27	(0.89-5.78)
Drinking	No(Ref)								
	Yes	0.03	.94	1.03	(0.45-2.35)	0.18	.64	1.20	(0.54-2.66)
Oral health interest	No(Ref)								
	Yes	0.27	.49	1.31	(0.59-2.88)	0.24	.53	1.27	(0.59-2.72)
Idea of gum health	No(Ref)								
	Yes	-0.32	.04*	0.92	(0.31-1.66)	-0.94	.03*	0.39	(0.16-0.92)
Constant		0.94	.05*	0.07		0.78	.55	2.19	

*p<.05, **p <.01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목적에서 비보건계열은 49.3%로 통증제거가 높았고 보건계열은 20.5% 기능수복이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3.5 연구대상자의 치과진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과진료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 학년, 흡연, 음주, 평소구강관심, 주관적 잇몸건강으로 Table 5와 같다. 이 중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보건계열에서는 여자가 4.63배, 비보건계열에서는 2.56배로 남성에 비해 진료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보건계열에서는 주관적으로 잇몸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0.92배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보건계열에서는 주관적으로 잇몸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0.39배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4. 고찰 및 결론

대학생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로서 중요한 교육 대상자이지만 간과되기 쉬운 대상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기유발을 통하여 지식을 높이고 구강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3]. 구강보건의식 수준은 향상 되었다고 하나 청소년기까지 누적된 구강병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개인의 치과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하나 부적절한

치과경험이나 그릇된 구강보건지식과 관심이 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14]. 그러므로 이시기에 구강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적극적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구강건강증진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는 전공계열에 따른 치과진료행태와 치과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과나 치위생과에 여성의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보건계열은 기숙사, 비보건계열은 자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계열이 다소 학업과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채와 최[15]의 선행연구에서도 비보건계열이 자택, 보건계열은 자택 외로 기숙사나 하숙을 선호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건강 및 구강건강 행태로는 음주횟수는 ‘주 1~2회 마신다’가 보건과 비보건계열 모두 높았으나 음주횟수가 3회 이상이 보건계열에 비해 비보건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음주 후 구강불편감은 두 집단 모두 ‘없다’라는 답변이 높았지만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불편감이 ‘있다’ 답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보건계열의 경우 술을 마신 후 나타나는 전신적으로 발현증상이 구강에 나타나면서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흡연은 보건계열에 비해 비보건계열의 흡연자가 많았으며 흡연 후 불편감 또한 음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 등[16]의 선행연구에서도 흡연과 음주는 상관성이

있으며 음주를 하는 경우 흡연의 동기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비보건계열은 보건계열에 비해 흡연 후 불편감에 대하여 크게 인지 못하고 ‘없다’라고 하였지만 보건계열은 ‘있다’ 답변이 비보건에 비하여 많게 나타났다. 이와 전[17]의 선행연구에서도 흡연 후 보건계열에서의 불편감이 높다고 나온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보건계열에 비해 구강관심이 보건계열이 더 높기 때문에 보여지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칫솔질 시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잠자기 전’ 두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임과 정[3]의 선행연구 역시 ‘잠자기 전’의 칫솔질이 실천률이 높은 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보건계열은 아침식사 전, 점심식사 후, 잠자기 전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높았고 비보건계열은 아침식사 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잠자는 동안 구강 안에 정체되어 있는 미생물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기상 후 칫솔질을 통해 정제된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칫솔질 횟수는 보건계열은 3회, 비보건계열은 2회 이하로 나타났으며 보조용품의 종류는 보건계열은 치실, 비보건계열은 구강세정제로 나타났다. 임과 정[3], 이 등[18]의 선행연구에서 치실의 사용이 높으며 구강보조용품 중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많이 권장하는 것은 치실이라고 하였다.

구강보건지식 I 은 보건계열은 ‘불소는 치아우식에 영향을 준다’, ‘치약의 성분을 확인한다’ 와 같이 구강건강과 관련되어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불소는 법랑질의 표면을 강화하여 우식에 대한 내산성을 증가시키고 치약은 다양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본인에 구강상태에 알맞은 치약을 맞게 사용한다면 구강건강을 더욱 좋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윤과 장 등[19]의 선행연구에서도 불소가 우식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과 구강건강인식이 보건계열이 더 높음과 유사하였다. ‘잇몸은 유전질환이다’ 에 대하여 보건계열이 비보건계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잇몸질환에 유전이 영향을 미치지기는 하나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개인 구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유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올바른 구강지식이 구강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한 등[20] 연구에서 대중적이고 고정적 관념이 잘못된 정보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평소 보건계열은 전공수업과 관련된 지식을 함양하여 유전보다는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비보건계열의 경우 보건과 관련된 기초지식이 부족한 만큼 보건 관련 교육과정을 통한 보건예방교육이 필

요하다고 여겨진다.

구강보건지식 II 는 ‘스켈링은 오히려 치아와 잇몸에 안 좋다’ 는 비보건계열이 보건계열에 비하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치과에서 스켈링을 받고 피가 나거나 이가 시린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치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치아에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임과 정[3], 황 등[10]은 치과진료 중 스켈링 처치가 많으나 치료 후 문제를 경험 한 경우 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나지고 이는 치과치료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치과진료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올바른 구강보건 교육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계열이 평소에 구강에 관심을 가지거나 주관적 잇몸건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전공에 대한 수업을 받고 이에 따른 지식으로 평소 구강에 대한 관심을 받아서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치과진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비보건계열은 통증증거, 보건계열은 기능수복이 높게 나타났다. 구강질환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초기진료 및 적절한 구강진료시기를 지나 활동에 제한이 이루어질 정도의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등 [4], 정 등[7]의 선행연구에서도 또한 구강질환이 사회적 건강도를 저하시키고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예방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구강진료 이용을 통한 구강건강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과 방문에 대한 심리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진료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성별에서 전공에 따라 모두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성과 문 [13], 임[21]의 선행연구에서도 구강건강지식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고 구강에 대한 상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치과진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진다. 또한 학년이 높아지고 흡연을 하거나 평소 구강관심을 가진 경우 치과진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주관적 잇몸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과진료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보건계열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이는 본인이 주관적 잇몸건강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치과치료에 적극적이지만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치과치료에 소극적이며 방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신 등[22]의 선행연구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특

성에 따른 관심이 많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하였다[8].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에 자칫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23]은 구강건강 장애 인지정도는 비보건계열이 높으며 자기 확신이 구강진료기관 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24]는 치과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중 대학생 이용률이 가장 낮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강에 대한 관심과 인지가 부족하여 이미 구강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올바른 구강 지식과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에 의한 진료를 행하는 것 추후 구강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전공이 보건과 연관성이 있는 계열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행태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에 보건과 관련된 일반적 건강지식으로 인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본다[3,19,23]. 따라서 비보건계열 학생들에게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강보건 교육의 경험유무에 따라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구강증진행위가 치과진료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누구나 구강진료기관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로 인한 불편감으로 구강건강의 소중함을 느낄 것이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한다면 치료보다는 예방으로 중심으로 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치과치료에 대한 부담이 감소가 된다고 여겨진다[25].

본 연구는 치과진료행태를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치과진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요인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시 대상자를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C. K. Lee, Y. S. Park.(2017). The Study of Evaluation of University Students' Health Behaviors. *J of Digital Convergence*, 15(12), 517-529. DOI : 10.14400/JDC.2017.15.12.517
- [2] S. A. Lim. (2018). Convergent Research on Oral Health Beliefs in Some University Students. *J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5), 37-43. DOI : 10.22156/CS4SMB.2018.8.5.037
- [3] J. N. Lim, Y. R. Jung.(2013). Development proposal of oral health educational media based on th oral health care and educational needs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3(2), 323-334. DOI : 10.13065/jksdh.2013.13.2.323
- [4] H. S. Lee, Y. M. Yoon, J. S. Lee, S. N. Kim.(2001). Restricted activity with oral disease in Korean university student. *J Korean Acad Dent Health*, 25(3), 245-258.
- [5] E. Y. Yoo, et al. (2012). Plaque control effect of tooth brushing instruction. *J Korean Acad Pediatr Dent*, 39(1), 17-25. DOI : 10.5933/JKAPD.2012.39.1.17
- [6] S. J. Jang. (2016).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functional oral health literacy,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some universitystudents. *J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2), 69-75. DOI : 10.15207/JKCS.2016.7.2.069
- [7] J. S. Lee, et al. (2004). The Oral Health Behavior and its related Factor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reventive Dentistry and Oral Health*, 28(3), 331-346.
- [8] S. J. Jang, H. J. Kim. (2013). A study on the dental knowledge and awarenes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1), 38-44. DOI : 10.13065/jksdh.2013.13.1.038
- [9] G. C. Jeong, et al. (2003). A Study on the Dental Services Utilization by Application of the Andersen Model in Students of Some Korean University. *The Korean Academy of Preventive Dentistry and Oral Health*, 27(3), 357-373.
- [10] H. R. Hwang, S. Y. Lee, Y.S. Cho. (2010). An Analysis of Dental Anxiety and Dental Utiliz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0(5), 357-363.
- [11] The medical service use status.(2016). <http://kostat.go.kr>
- [12] B. R. Lee, Y. H. Lee.(2017). Oral health beliefs and oral health behaviors related factor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7(3), 431-440. DOI : 10.13065/jksdh.2017.17.03.431
- [13] J. M. Sung.(2012). A study on the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other major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2(3), 577-583.

[14] S. K. Hee, K H. Jin.(2010). A Survey on Perception of Some of University Student's Oral Health Care after Dental Treatment.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12(4), 315-326.

[15] M. J. Chae, G. S. Choi. (2012). Comparison between Self-esteem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Health Department and Non-Health Department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16(1), 53-63.

[16] Y .Y. Lee. (2017).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Smoking, Drinking and Stress on Female college Premenstrual syndrom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135-142.
DOI : 10.15207/JKCS.2017.8.9.135

[17] J. H. Lee, E. S. Jeon. (2011). A Study on the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Pattern and Interest of Oral Health Care According to Smoking or not and Health - 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The Korea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5(3), 169-177.
DOI : 10.12811/kshsm.2011.5.3.169

[18] S. M. Lee. (2016).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s of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in Schoo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2), 696-702.
DOI : 10.5392/JKCA.2016.16.02.696

[19] S. U. Yoon, S. J. Jang. (2016).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health-related and health-unrelated majors university students in some area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97-104.
DOI : 10.15207/JKCS.2016.7.1.097

[20] Y. J. Han, M. A. Han, S. Y. Ryu, S. W. Choi. (2015). Oral health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in public health majoring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5(3), 487-495.
DOI : 10.13065/jksdh.2015.15.03.487

[21] S. A. Lim. (2017). Convergence factors of subjective oral health awareness perception on oral health improvement behavior in som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1) 167-175
DOI : 10.15207/JKCS.2017.8.11.167

[22] A. R. Shin, et al. (2016). Subjective awareness characteristics, knowledge and behavior of oral health among som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Health Educ Promot*, 33(1), 41-48.
DOI : /10.14367/kjhep.2016.33.1.41

[23] E. J. Jung. (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Oral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Dental Hygiene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0(1), 1-9.

[24] M. G. Ji. (2018). 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y students' Dental Fear and Mental Hardiness, subjective well-being. *J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5), 59-68
DOI : 10.22156/CS4SMB.2018.8.5.059

[25] S. K. Kim. (2017). The Effect of Preventive Treatment Experience on Treatment Satisfaction and Dental Fear. *J of Digital Convergence*, 15(10), 485-492.
DOI : 10.14400/JDC.2017.15.10.485

김민아(Kim, Min A)

[정회원]



- 2009년 8월 :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구강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 2013년 8월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4년 8월 ~ 현재 : 송호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공중구강보건학, 융합
- E-Mail : uriaju@songho.ac.kr

장현정(Jang Hyun-Jung)

[정회원]



- 2006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 2015년 2월 :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구강보건학, 공중보건학
- E-Mail : bxo74@naver.com

이연경(Lee Yeon Kyoung)

[정회원]



- 2009년 8월 :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석사)
- 2013년 8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4년 1월 ~ 현재 : 송호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면세마, 의료법규
- E-Mail : lyk0312@songho.ac.kr